

여성 경제인들 현장 목소리 청취

우범기 정무부지사, 라퓨터 현대어패럴 찾아 현장행정 "현장 의견 수렴해 실질적 도움 될 수 있도록 힘쓸 것"

우범기 전북도 정무부지사가 30일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영 여건에서도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해 준 여성 경제인들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다.

우범기 부지사는 여성기업이면서 전북도 선도기업으로, 대규모 국가R&D 과제에 선정돼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일자리 창출을 이뤘다고 있는 (주)리퓨터와 20년의 노하우로 품질의 우수성을 중국 등 세계시장에서도 인정받고 있는 (유)현대어패럴의 사업 현장을 찾았다.

(주)리퓨터는 지식기반 제조 중소기업으로,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사물인터넷(IoT) 분야 중소기업이며, 전주대학교 등과의 산학연을 통해,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분야 융합 기술력을 보유한 전북도 선도기업이다.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지난 3년 동안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관련' 스마트-팜 및 스마트-시티 분야 국가R&D지원사업(9건, 정부지원금 35억)에 선정돼 미래 시장에 도전하고 있다.

또한, 경영혁신을 통해 기존 사업 분야인 네트워크 통합, 조달컴퓨터, 노트북, 화상회의시스템 시장에서 3년 평균 26.8%, 전년도 대비 55.4%의 매출



우범기 부지사는 30일, 여성기업이면서 전북도 선도기업으로, 대규모 국가R&D 과제에 선정돼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일자리 창출을 이뤘다고 있는 (주)리퓨터를 방문한 가운데 관계자들과 함께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신장과 7명(3년 합계)의 신규일자리를 창출을 이뤄냈다.

김명자 리퓨터 대표는 "지난 3년간의 매출 성장과 지속적인 R&D투자를 발판으로 도내 4차 산업혁명 분야 1천여 기업을 목표로 뛰고 있다"면서 "다만, 올해 포스트 코로나로 인한 시장 불안정성이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지만, 전북지역 산학연관이 똘똘 뭉쳐 위기를 극복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유)현대어패럴은 유아복 전문 제조 포장 중소기업으로, 자체적인 공정관리 절차와 우수한 품질 생산 및 불량제품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자체 메뉴얼 지

침을 준수해 동종 기업에서 고품질 생산 업체로 인식되고 있는 기업이다.

20년의 노하우를 가진 포장 및 입가공 전문 업체로서 국내 유명브랜드 OEM 방식의 사업을 시작으로, 지난 2018년 1월 브랜드 'PRANCLING(프랜스링)'을 런칭해 자체 소평물을 오픈, 아이음 공용소평에서 100% 넘는 성과를 보였으며, 현재 다양한 온라인 유통채널에 입점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기술력과 제품의 생산성을 인정받아 자체 제작 제품 모두 KC 인증을 받았으며, PRANCLING(프랜스링) 실내상하복은 의류시험연구원을 통해 어린이제품 안전성 검사와 무형

광 제품으로 인증받았다.

박정희 (유)현대어패럴 대표는 "지속적인 제품 안전성 검사와 친환경섬유 개발을 통해 더욱더 성장, 세계 패션시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우범기 정무부지사는 "기업 규모는 작아도 차별화된 역량을 보유한 우수한 여성기업들이 지역경제를 선도해 나가는 것을 보니 뿌듯하다"며 "여성기업인들의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여성기업인들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환경·노동 현안 해결 대안 제시 앞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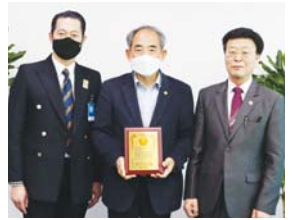
민주 윤준병 의원, 국정감사 최우수 의정활동 대상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30일 사단법인 한국유권자총연맹(이하 연맹)이 선정한 '2020 국정감사 최우수 의정활동 대상'을 수상했다.

(사)한국유권자총연맹은 시민단체 모니터원들과 자체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 결과를 종합해 국정감사에서 두각을 드러낸 국회의원들을 평가해 '2020 국정감사 최우수 국회 상임위 대상 및 의정활동 우수의원'을 선정했다.

연맹은 윤준병 의원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특수고용 노동자들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제의 신청제도의 모순을 날카롭게 파고들었으며, 전국민 고용보험과 II0 핵심협약 비준,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환경·노동 분야의 현안 해결을 위한 대안 제시에 앞장섰다고 평가했다.

또한, 그린뉴딜 정책의 성공을 위한 미래차 충전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가습기살균제와 코로나19 의료폐기물 처리 문



제, 불법폐기물 무단방치 문제 등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등 성실한 정책활동으로 국민안전과 환경보호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밝혔다.

윤준병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이번 국정감사에 '민생 정책 국감', '대안을 제시하는 국감'을 목표로 성실한 활동을 펼쳤던 부분을 좋게 평가해주셔서 뜻 깊은 상을 수상할 수 있었던 것 같다"며 "노동·환경 주요 핵심 정책과제들이 제대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

한솔케미칼 익산 투자유치 확대

한솔그룹 조동혁 명예회장

민주 김수홍 의원에

공장 조기투자 약속

더불어민주당 김수홍 의원(익산시갑, 기획재정부)이 한솔그룹 조동혁 명예회장을 만나 익산 3산단에 대한 조기투자 및 향후 계획 중인 신규사업 투자 시에도 익산지역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는 확답을 받아냈다.

지난 29일 조동혁 명예회장은 익산시 마곡사지를 전격 방문해 김수홍 의원, 정현을 익산시장, 김원오 상공회의소장 등을 만난 자리에서 통 큰 투자를 약속했다.

이로써 2021년을 익산 기업유치의 해로 선언한 뒤 분주하게 전곡을 누비며 기업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김 의원의 노력이 한솔그룹을 통해 첫 결실을 맺게 됐다.

3산단에 입주할 기업은 한솔그룹에서도 핵심으로 꼽히는 (주)한솔케미칼이며, 약 4만 평 규모의 부지에 1,373억 원 가량을 투자해 2차전지 및 반도체 제조용 화학제품을 생산할 계획이다.

특히, (주)한솔케미칼은 지난 2019년 일본의 수출규제 위기 상황에서 정밀화학 소재의 국산화에 성공하는 등 급성장기를 맞이하고 있는 추세여서 향후 신소재 개발과 함께 신규사업 투자도 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수홍 의원은 한솔그룹이 2019년 익산시와 투자협약을 맺은 이후, 지지부



진한 상황에 빠진 익산시에 대한 투자가 조기에 실행될 수 있도록 긴밀히 접촉해 왔다.

이날 조 명예회장은 향후 익산에 대한 확고한 투자 의지를 밝히며, 특히 공장 건축 시 지역에서 생산된 건축자재 사용 및 지역업체 배려를 약속했다.

또, "직원 고용에도 익산지역 인재를 우선 채용하겠다"며 "아울러, 최근 개발에 성공하고 개발중인 미래 건축 소재 '에어로젤'을 생산할 공장도 익산 지역 우선 배치를 약속"하는 등 익산시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나타냈다.

김수홍 의원은 "골지의 기업인 한솔이 익산을 선택해준 것에 감사드리고, 이 결실은 익산시장과 상공회의소를 비롯한 모두의 노력 덕분"이라며 "한솔케미칼은 물론 익산에 투자한 기업들이 승승장구해 더 많은 신규 투자가 이어지도록 기업의 입장에서 적극 도울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마스크 착용 '필수'·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전주시 체육인 인권보호

증진 조례, 임시회 본회의 가결

전주시의회 이남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주시 체육인 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가 지난 26일 전주시의회 제37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전주시 체육인 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는 시장이 체육인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추진하고, 체육인인권현장 선포 및 인권사업 추진사항, 시행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체육인 인권사업의 근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한 해당 조례는 전주시, 교육지원청, 시 체육회, 지도자, 선수 등으로 구성된 인권협의체 운영해 체계적인 인권실태조사 및 교육을 진행함과 함께 체육인 인권침해 신고 및 상담을 위한 기구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사안에 따라서는 전주시 인권담당관이 조사, 시정 권고 등을 할 수 있도록 해, 지역사회의 체육인 인권보호 및 증진의 실효성을 한층 더 시스화했다. /김윤상 기자

"국내 생산 백신 반출 막아서라도 연내 집단면역 달성해야"

이용호 의원 "계약 물량 차질 없이 직접 공수 등 전락 마련을"

국회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 보건복지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30일 "코로나19가 좀처럼 사그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EU와 인도 등 세계적인 백신 생산국들이 자국 우선주의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면서 "전 세계가 백신 확보 전쟁을 벌이고 있고 이미 어느 정도 예상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방역당국은 어떤 대안을 갖고 있고,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국내에서 상반기에 접중할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의 약 890만병 분으로, 같은 기간 접중 대상자만 1,200만병 수준이기

때문에, 부족분 310만병 분은 안센, 모더나, 노바백스 백신으로 채우면 된다는 게 정부 방침이었다. 그러나, 이들 3사마저도 2분기 이후로 미루고 당초보다 적은 물량 공급이 가능하더라도, 원재료 부족 통보를 한 바 있으며, 이에 공급 일정 자체를 정하지 않은 회사도 있다.

이 의원은 "방역당국이 단순히 국제적 공급 상황이 어렵다거나, 급변하는 백신수급 현실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특단의 대책 없이 '노력'만 하겠다고 하다가는 백신을 맞고 싶어도 제때 맞지 못하는 상황이 오게 될 것이다"며 "그 뒷감당은 과연 누구의 몫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미 수차례의 사회적거리두기 조정과 지역하기 어려울 정도의 방역지침에도 불구하고, 많은 우리 국민들은 일상생활이 불편해도 정말 꼭 참고 방역당국에 협조하면서 1년 넘게 생활하고 있다"면서 "더 이상 국민들에게 백신 관련 불안을 줘서는 안되며, 범 정부차원에서 수급 불안이 풀리기 전까지 국내 생산 백신에 대해 반출제한 조치를 하거나, 당초 계약한 물량을 차질 없이 직접 공수해 오는 등 특단의 백신수급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

민주 Legislaton 범죄수익은닉법 불몰... 소급적용·사망 후도 몰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내부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범죄 수익 환수 소급적용을 골자로 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잇따라 발의하고 있다.

백혜련 의원은 30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과 형법 개정안 등 일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 몰수·추징

법'을 대표발의했다. 백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개정안은 몰수 범위를 금전과 그 밖의 재산으로 확대해 LH 사건의 부동산 역시 몰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범죄자 사망·소재 불명 등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

우에도 요건을 갖춘 경우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했다.

김영호 의원도 공직자 및 공공기관 종사자 등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부당하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을 경우 범죄 시점과 관계없이 범죄수익을 소급해 몰수·추징하도록 하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뉴시스



민간조사 전문기업

탐정 法人 해결사

가족 실종자찾기
민.형사 증거조사
개인.가족.기업 고민상담

010-5636-7755

907호